



뒤돌아보는 16세기 종교개혁

이상규(고신대학교)

종교개혁은 교회사에서 위대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로의 교리적 개혁이자 새로운 영적 쇄신운동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개혁만이 아니라 서구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영어의 레포메이션(Reformation)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이지만, 정관사 ‘더’(the)를 붙여 ‘The Reformation’ 이라고 쓰면 16세기의 교회개혁 운동을 칭하는 고유명사가 된 것만 보아도 이 사건이 단순히 종교적 문제에 국한된 교회내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가인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는 서구역사에서 가장 큰 정신적 혁명을 역사주의와 종교개혁이라고 했는데, 이점도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회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중세적 사회구조, 가치관, 문화현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고,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현대시민사회의 형성, 민주주의의 발전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1.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혁자들의 근본적인 관심은 일반적 의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에서 개혁이 시작되었다. 물론 16세기 당시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였고, 기독교라는 종교 환경이 인간의 사회적 삶을 지배해 왔지만 오늘과 같은 다원적인 종교현실에서 볼 때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 모든 종교를 망라한 범 종교적 쇄신의 의미로 오해될 소지도 있다.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근본 동기나 그 과정은 일반적 의미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쇄신이었다. 따라서 ‘교회개혁’이라는 표현이 보다 직접적인 표현인 동시에 개혁의 정신에 부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동안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왔던 것은 일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선교사들의 문서, 특히 한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첫 사람인 왕길지의 기록에 보면 그는 ‘종교개혁사’를 ‘교회개정사’(敎會更正史)라고 불렀다. 그의 표현도 따지고 보면 교회개혁이라는 용어에 가깝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때로 ‘개혁주의’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였다.

종교개혁이란 간단히 말하면 원시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본래적인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에서 떠나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적인 제도(Sacramental System)와 공적사상 등과 같은 비 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근본의 기독교, 혹은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은 오도되고 변질된 신학과 교회로부터 성경 본래의 기독교로의 회복운동이었다. 그 근거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 그 동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대신했으나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천명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 사상이다. 성경 중심이란 말은 성경 이외의 어떤 것도 권위의 근거나 신학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16세기 상황에서 보다 분명히 말하면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다.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사죄와 은혜의 수여자라는 당시 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바로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이 영광 받아야 할 대상일 수 없다. 말하자면 성경이 유일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확인과 함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 교회개혁 운동이 가져온 신학적 성취인 셈이다.

구원관에 있어서 자의적 혹은 이교적, 율법적, 그리고 보상적 이해나 주장은 교회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행위로 얻어지는 공로의 결과라는 오도되고 변질된 구원관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16세기 개혁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다.

종교개혁은 결코 어떤 새로운(new) 신학운동이 아니었고 종교개혁 신학은 어떤 새로운 신학(a new theology)이 아니었다. 교회개혁을 통해 가르쳐 준 신학은 16세기에 비로서 형성된 신학이 아니었다. 이미 사도적 교회로부터 있어 왔으나 오랜 세월동안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권과 미신, 그리고 비복음적인 전통 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16세기 개혁을 통해 다시 확인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어거스틴(Augustine)의 은총의 신학을 보며,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以信得義) 교리의 부흥을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단순히 교리적(신학적) 개혁운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은 교리적 개혁이자 영적 쇄신이기도 했다. 종교개혁을 신학(神學)이나 의식(儀式), 제도(制度) 등 중세적 오류에 대한 비판과 거부로 시작된 교회의 신학적 개혁운동으로만 생각해 온 것은 신학적 변질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냉랭한 교권체제에 대한 개혁은 자연스럽게 영적 쇄신을 가져왔다. 사실 사제주의(司祭主義) 하에서의 영적 침체 때문에 개혁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것이 개혁을 이루는 저력이었다.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은 복음주의적 개혁운동인 동시에 영적 갱신운동 혹은 영적 부흥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¹⁾ 정리해서 말하면 종교개혁은 교리의 개혁(Reform)과 영적 부흥(Revival)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종교개혁’ 혹은 ‘교회 개혁’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뭔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내적 요인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중세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흔히 교회의 변질 혹은 교회의 부패는 4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기독교를 그 이전과 구별하여 ‘콘스탄틴적 기독교’(Constantinian Christianity)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재세례파는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교회의 변질과 국가권력과의 야합의 분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개혁의 이념은 313년 이전의 교회로의 ‘복귀’(restitutio)였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칼빈주의 역사신학자였던 윌리엄 커닝햄은 그의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제1권 7장에서 이미 2세기에 성경적 교회관의 변질을 보여주는 3가지 조짐이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즉 고위성직(prelacy) 계급의 출현, 은혜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의 대두, 그리고 성만찬의 효과에 대한 과장된 개념의 대두가 그것이다.²⁾

일반적으로 루터교 학자들은 루터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여 개혁운동에서 루터의 주도적인 영향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루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개혁은 불가피했다. 그 만큼 교회는 그 본래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부패와 타락이 심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16세기 개혁이 불가피했

1) Jeremy C. Jackson, *No other Foundation, the Church through Twenty Centuries*, Cornerston Books, 1980), 제11장 참고.

2) William Cunningham, *Historical Theology*, Vol. 1, 202.



다고 말할 때 교회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다양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의 부패였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교회지도자들이 썩었다는 뜻이고,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 부패했다는 뜻이다. 물론 중세시대의 교리적 오류나 탈신, 제도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성직자들을 비윤리를 정당화 하는 ‘겸직제도’(pluralism)나 ‘부재 직임제’(absenteeism), 성직자들의 취첩을 묵인하게 해 주었던 세금제도(Concubinage fee)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모든 문제의 해결일 수 없다. 우리가 1970년대 이후 독재정권 하에서 제도나 체제와의 싸움에서 경험했지만 어떤 점에서 제도와의 싸움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것이 인간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도 또한 불의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잘 해명한 분이 「현대, 이상, 이데올로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화란의 하우스바르트(B. Goudzwaard)이다. 그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부패’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의 부패였다.

당시의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여러 실 예가 있지만 몇 가지 경우만 소개하고자 한다. 교황 보니 페이스 8세(Boniface VIII, 1294-1303)는 1300년 2월 22일 새로운 세기를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소위 희년을 선포하고, 교황 칙령을 통해 “이 희년동안에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를 아무런 보류도 없이 사해준다”고 선언하였던 사람인데,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교황 관저에는 48개의 루비, 72개의 사파이어, 45개의 에머랄드, 66개의 커다란 진주들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³⁾

돈 만드는 천재로 알려진 요한 22세(1316-1334)는 각종의 징세제도를 창안하여 교회 질서를 극도로 문란 시켰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했다.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1492-1503)의 타락은 그 이전의 교황보다 더 심각했다. 그는 교회의 관행과 규율을 무시하고 극도의 타락과 방종한 생을 살았는데, 교황이 되기 전에도 몇 사람의 정부와 3남 1녀를 두고 있었으나, 교황이 된 후에 7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

1447-1517년 어간의 교황 중 절반이 사생아를 두었고, 15세기 말 콘스탄츠교구의 경우 매년 약 1,500명의 사생아가 출산했다. 스코틀랜드의 성(性) MaTagart는 ‘사제의 아들’(son of the priest)이란 뜻이고, MacNabb이라는 성은 ‘수도원장의 아들’(son of the abbot)이란 뜻에서 기원했다. 말하자면 이 두 성의 시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정결치 못한 출생이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는 소위 여성의 집(Frauenhausen)이라는 환락가가 있었고, 여성의 주 고객은 성직자들과 고위 관리였다. 교회의 윤리적 부패는 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16세기에는 반(反)성직주의 사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중세말기에 나온 유명한 경구,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Vita clerici est evangelium laice)는 말은 당시 성직자들의 도덕적 상태를 암시해 준다.

종교개혁기 초기 교황이었던 아드리아누스 6세(Adrianus VI, 1522-1523)는 신성로마제국의 뉘른베르크교회(1522-23)에 파견한 교황사절 프란체스코 치에레가띠 추기경에게 보낸 훈령에서 “루터 이단으로 교회가 받는 어려움의 책임은 성직자들, 특히 교황청과 그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시인했을 정도였다. 이 훈령에서는 “교회 안에는 가증할만한 폐습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병폐들은 교황을 포함하여 성직자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세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직교육의 부재와 성직자의 양산이었다. 이것이 중세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적 요인이었다. 테르나겔(N. S. Tjernagel)에 의하면 16세기 초 유럽 인구 중 85%가 농민, 노동자였고, 10%가 통치 그룹 혹은 귀족이었고, 성직자가 5%에 달했다고 한다.⁴⁾ 1500년 당시 세계 인

3) 브루스 셸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277.



구를 약 5억으로 추산하는데, 유럽의 인구를 1억으로 본다면 성직자 수는 무려 5백만 명에 달한다. 독일 지방 쾰른(Cologne)만 해도 무려 5,000명의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있었다. 전 독일에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숫자는 무려 1백 50만 명에 달했다. 어떤 지역은 인구 30명당 1명의 성직자가 있었다고 한다. 성직자의 과다한 배출은 성직자의 지적, 영적, 도덕적 수준을 저하시켰고, 이들을 상호 경쟁적으로 만들었을 뿐 만 아니라, 성직자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 성직자의 양산은 성직자들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성직자 수의 급증은 성직자들의 혜택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어떤 성직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향유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으나, 다른 한편의 성직자들의 빈곤과 가난은 극에 달했다.⁵⁾ 가난한 성직자들은 세속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가죽 제조업, 직조, 제조업, 버터와 치즈 행상을 하기도 했다.

오늘 한국교회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 혹은 문제의 소지도 따지고 보면 성직교육의 불균형과 과다한 성직자의 배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성직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남한의 인구를 4천 5백만 명으로 볼 때 인구 450명 당 1명꼴의 성직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 성직자의 10%가 임지 없는 '비활동 인력'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스펀지도 예상 못했던 제3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⁶⁾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경우, 임지 없는 목회자는 약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로교 고신교단의 경우 전체목회자의 10%에 해당하는 160여명의 목회자들이 새로운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성직자의 과도한 배출은 개척교회의 난립과 교회분열, 그리고 성직자 간의 과도한 경쟁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직자의 양산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3. 중세교회의 문제들

이상에서 종교개혁의 원인을 주로 교회의 부패라는 측면에서 말했지만 역사적 사건의 원인은 어느 한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원시적(遠視的)으로 중세교회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보통 중세는 부패한 시대였다고 말하지만 중세에 와서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은 아니다. 중세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중세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내적 요인들이 그 이전시대부터 있어왔다는 사실이다. 교회사가들이 교회의 변질이 4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313년의 기독교가 공인과 380년의 로마제국에서의 기독교의 국교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독교회의 신앙과 삶의 커다란 변화였다. 그 동안 '불법의 종교'로 박해받던 기독교는 이제는 '합법적 종교'가 되었고, 로마제국의 유일한 국가적 종교로 보호받고, 비호받기 시작했다. 탄압받던 종교가 보호받는 종교로, 반국가적인 종교가 국가종교(State-religion)로 변모되었다. 이런 정치적 변화와 함께 기독교의 내적 삶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그 변화란 이전 시대에서와 같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투쟁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츰 교회는 속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초의 교회당 건물이 발견됐을 때는 256년이었다. 그 이전에는 별도의 교회당 건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 이전에는 개인 집이나 공회당 등을 집회장소로 이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였고 심각한 물리적인 탄압 속에서도 교회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4) N. S. Tjernagel, *The Reformation Era* (Concordia, 1968), 11-12.

5) 개신교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한다. 1529년 비텐베르크시의 목사들은 200굴덴(금화, Gulden)를 받다가 나중에는 300굴덴과 50부셸의 곡물을 받았으나 시골의 목사는 20굴덴에 지나지 않아 도시 목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축을 키웠다고 한다. 독일 일부지방에서는 성직자들이 극빈상태에 떨어져 중세시대처럼 성직자 거지들이 프로테스탄트교회 안에도 생겨났다고 한다. 오언 차드워, 「종교개혁사」, 437.

6) 이상규, “고신교단의 목회자 수급현황,” 「교회연구」 제2권 4호(총신대학교 교회문제연구소, 1998. 8), 48-64.



그러나 4세기 이후 교회적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종교가 되어 ‘나그네적’ 교회가 이제는 로마제국 중심에 좌정하는 ‘안주하는 교회’로 변모되어 갔다.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한 이유로 보호를 받았고,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다. 319년에는 성직자와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었고, 321년부터는 안식일 휴무가 법제화 되었다. 군 복무에도 혜택이 주어졌다.⁷⁾ 원래 교회는 ‘고난 받는 공동체’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고난 받는 집단이 아니었다. 이제는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하였고, 큰 교회당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는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그곳에 큰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황제들은 필요 이상의 큰 교회당을 세우는 일도 있었다. 교회당을 지나치게 찬란하게 짓는 일에 대하여 비판과 경고가 일어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세기의 요한 크리소스톰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본질적인 동기의 교회건축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위험성을 감지했던 것이다. 이런 변화 때문에 콘스탄틴 이전과 콘스탄틴 이후를 구분하고,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를 ‘콘스탄틴적 기독교’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중세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리와 신학의 변질이다. 오도된 교리와 인간중심의 신학, 공로사상, 거짓된 경건과 신비주의는 이 시대의 변질된 신학의 일면이다. 둘째는 부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보여 주는 바처럼 부(富)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 부요에는 영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교회 지도자가 부에 탐닉하였다는 말은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을 다스릴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교회가 세속 권력을 탐닉했다는 점이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권력지향적 계급체제로 변모되었고, 교회지도자는 세속권력을 추구했다. 교황은 교회의 수장으로만이 아니라 세속까지도 다스리는 교황이었다. 교황은 최고의 권력이었고, 이 세속적 권력과 부는 교회의 세속화와 교리적 탈선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4. 종교개혁의 전개

비텐베르그대학의 교수이자 신부였던 루터(1483-1546)는 오랜 번민의 날들을 거쳐 복음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의 발견을 학자들의 ‘탐의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자신에게는 물론 당시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는 당시 교회의 무지와 신학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16세기 당시 속죄부 혹은 면죄부라는 증거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가공할만한 거짓이 유포되고 있을 때, 그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했는데 이것이 개혁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이때 루터는 34세였고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는 겨우 인구 2천명의 작은 도시였다.

이 항의문이 독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식자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기재된 것을 보면 루터는 결코 ‘종교개혁’이라는 거사를 의도하지 않았고 단지 학문적 토론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은 인쇄술의 힘을 입어 전 구라파로 확대되었고 교회개혁의 거사로 발전되었다. 천주교나 개신교운동 양측에 대해 공정한 역사가로 알려진 랑케(1795-1886)는 구라파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종교개혁을 들었는데, 실로 이보다 큰 역사의 변혁은 그리 흔치 않았다.

이 당시의 교회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교회를 개혁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루터교 학자들은 루터가 아니었더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루터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는 무지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갖 미신과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었다. 교직자

7) 성직자들은 기독교로마제국 초기부터 일정한 면제혜택을 누렸다. 군복무와 세금은 물론 세속 법정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범법한 경우에 교회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와 성직자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가 가중되었고 평신도들은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들(tradition)과 미신과 무지에 쌓여 가려져 있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심지어는 성경을 소지하는 일조차도 금지된 상황은 영적 흑암이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곧 공로(功勞)로 얻는다는 교리는 거짓된 평안을 줄 뿐 진정한 영적 위안이 되지 못했다. 흔히 천주교의 구원관을 ‘신인협동설’(神人協同說)이라고 하는데, 면죄부 판매는 바로 오도된 천주교의 실상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95개 항의문이 나온 것이다. 95개조의 주된 내용은 성경적 회개의 의미를 설명하고 면죄부의 무효성을 주장한 것인데, 교황(사제)의 사죄권과 공로사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천명한 것이다.

앞에서 부분적으로 말했지만 종교개혁의 원인은 교회의 부패라는 윤리적 측면이나 교리적 탈선이라는 신학적 이유 외에도, 국가주의(Nationalism)의 대두, 문예부흥운동의 영향, 천주교의 이념적 기초였던 스콜라 철학의 붕괴,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개혁의 동기와 개혁운동의 진전에 일조한 것이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천주교의 교권 체제하에서 영적인 갈망은 범람하는 물처럼 구라과 전역으로 흘러갔고, 이것이 교회개혁을 가능케 했던 주된 동인이었다. 이 영적 갈망과 진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천주교의 처절한 탄압과 박해가운데서도 개혁운동은 전개될 수 있었다.

독일에서 루터의 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스위스에서는 쾰링글리과 칼빈에 의해 이 운동이 확산되어 갔다. 쾰링글리는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지역인 취리히(Zurich)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토론을 통해 시의회의 인정을 받아 개혁운동을 확산해 갔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1531년 카펠(cappel)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때 그의 나이 47세였다.

스위스의 불어사용 지역의 개혁자가 칼빈이었는데, 칼빈은 루터나 쾰링글리에 비해 한 세대 후배였다. 칼빈은 1533년 불란서를 떠난 후 1536년 기독교강요(초판)를 바젤(Basel)에서 출판하였고, 그해 7월부터 제네바(Geneva)에서 개혁운동에 관여하였다. 1538년 4월부터 1541년 9월까지 3년간 스트라스버그(Strassburg)에서 보낸 기간을 제외하고는 1564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개혁자들 외에도 필립 멜랑히톤이나, 불링거, 마틴 부서, 존 낙스 등 여러 개혁자들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독일, 스위스, 화란, 불란서, 영국, 스코틀랜드 등지로 확산되어 갔다.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루터, 쾰링글리, 칼빈의 개혁운동이 주류(主流)이며 정통이라고 한다면, 재세(침)례파(Anabaptists), 신령파(Spiritualists), 복음주의적 합리론자(Evangelical Rationalists)들은 비주류 혹은 잠류(潛流)라고 할 수 있다. 하바드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였던 윌리엄스(G. H. Williams)는 전자를 관료적 혹은 행정적(Magisterial) 개혁이라고 하고, 후자를 급진적(Radical)개혁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전자는 개혁운동의 과정과 그들의 신학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재세례파 그룹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였으므로 급진적이라고 보았다.

오늘 우리가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교회라고 말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겨난 때는 1529년이었다. 1526년 여름에 모였던 스페이어국회(Diets of Speier)에서는 제후 및 제국도시의 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루터파를 인정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지배자(제후)의 종교에 따른다(cujus regio, ejus religio)고 하여 루터파를 지지하는 제후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루터파를 인정하였으나, 3년 후인 1529년 제2차 스페이어 국회에서 이를 반복하려고 했다. 이때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쉬말칼텐 동맹을 결성하여 항의서를 제출했는데(protest), ‘항의한 자들’이라고 하여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날이 1529년 4월 19일이었다.



교회개혁은 복음주의 측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두 유형으로 발전되었는데, 루터파(Lutheran)와 개혁파(Reformed)가 그것이다.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고 멜랑히톤에 의해 계승된 루터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스칸디나비아반도로 확산되어 갔으며,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 등에 의해 형성된 개혁교회는 스위스, 화란, 독일 등지로 확산되어 갔다. 사실 츠빙글리가 살아있을 때는 칼빈과 별로 접촉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후계자가 된 불링거(J. Bullinger, 1504-1575)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칼빈과 더불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파 교회(Reformed church)이다.

그런데 존 나스는 스코틀랜드에서 1560년 개혁을 단행하고 장로교 총회를 조직했는데, 그는 개혁신앙을 따르면서도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회’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인접한 잉글랜드의 감독제도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잉글랜드의 국교회, 곧 성공회가 감독제 교회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교회는 감독제 교회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다시 말하면 ‘감독제’교회가 아닌 ‘장로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장로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라파에서는 ‘개혁교회’나 스코틀랜드에서의 ‘장로교회’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물론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약간의 상이점은 상존하지만 개혁교회라 할 때는 그 신학을, 장로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의 정치제도 곧 장로 제도를 강조하는 표현일 따름이다. 스코틀랜드인의 이주를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장로교회가 소개되었고, 그 후예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내한함으로써 한국에 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5. 교회개혁과 사회변화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에만 유효한 개혁운동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학의 갱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변화를 주는 광범위한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루터보다 칼빈의 기여가 컸다. 루터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였고 기존 질서(정치권력)에 대해 평행적 관계를 지녔지만 칼빈은 이 단계에서 진일보하였다. 루터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칼빈은 하나님 중심주의(Theocentric)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신관은 인간관 사회관 등 신학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트릴취(Ernst Troeltsch, 1865-1923)의 평가는 이렇다. 그는 칼빈주의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사회전체의 삶을 계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과 일종의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칼빈주의는 교회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고, 루터교 처럼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를 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처럼 몇몇 기관을 세워 두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트릴취의 말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사회를 성숙 이원론에 따라 분리하여 이분화(Dychotomy)하지도 않았고, 사회와 그 제도를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제도, 조직, 직업, 직위 등 질서를 설정하였으며, 이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예측된 수종자(servants)로 표현된다. 정리해서 말하면 종교개혁은 두 가지 점에서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근거와 가능성을 가르쳐 주었다. 첫째, 성(聖), 속(俗)의 이원론적 구분은 개혁주의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성과 속의 이원론적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영역)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성, 속 이원론은 영역분리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두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삶과 행동양식을 갖게 해 준다. 그리고 종교행위를 단순히 주일예배와 이와 관련된 행위로만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며, 또 소위 세속적 영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짙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종교개혁은 사회나 사회구조는 절대불변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중세적 세계관은 우주와 사회를 위계체제적인 존재의 사슬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회조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불변의 구조로 보지 않았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사회를 절대불변의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는 타락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개혁될 수 있다는 점도 암시한다. 사회란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단순한 개인의 집단이 아니라 일정한 틀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사회란 다수의 개인들의 집합만이 아니라 ‘조직’ 혹은 ‘구조’라는 성격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조에서 오는 불의나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조직이나 세금제도, 임금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고 말할 때 인간의 집단은 ‘사회는 악하다’라고 단순히 말할 정도 그 이상으로 사회는 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어떤 때는 개개인의 악들이 다 합해진 것보다 더 사회는 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개혁은 중세적 가치였던 성속(聖俗)의 이원론적 구분을 타파함으로써 사회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었고, 모든 ‘세속적’ 직업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중세에는 성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고 인식했으나, 루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루터는 자신이 수도원의 맹세를 통해 눈물겹도록 감동하였다고 했지만 후일 그는 「수도원 맹세에 관하여」(*De votis monasticis*)라는 글을 통해 수도원적인 삶만이 고상하고 보다 거룩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람이 무슨 일에 종사하던 다 소중한 것임을 석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였다. 이 점이 그의 직업에서의 ‘소명론’(召命論)인데, 그에 의하면 모든 직업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아래로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봄으로서 모든 직업은 다 동등하게 의미를 지닌다.

칼빈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장은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은 세속으로부터 격리된 수도원에서의 삶이 아니다. 어찌면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마저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악과 불의와 맞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진정한 거룩임을 일깨워 주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빛이요, 소금이요”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이였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리적 개혁(Reform)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에 의미를 주는 영적 부흥(Revival)의 성격이 있다.

실로 16세기 개혁은 교회와 신자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예배의식이나 제도는 신학을 반영했으므로 종교개혁 이후 예배당의 구조와 양식이 달라졌고, 예배 의식이 달라졌다. 의식 중심의 성찬대가 성당 중심부에 있었으나 개혁교회 예배당에서는 강단이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성찬대는 그 밑에 두게 되었다. 말하자면 의식 중심의 중세 예배는 말씀중심의 예배로 개편된 것이다. ‘그 개혁’이란 바로 교회의 개혁이었고, 개혁은 교회적 삶과 신자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5. 맺는 말: 나그네로서의 삶

뒤돌아 볼 때, 중세교회는 지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이 역사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했을 때 ‘나그네성(性)’ 혹은 ‘나그네 의식’을 상실했다. 중세교회의 문제란 나그네적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안주 집단으로 변질된 결과였다. 교회가 이 역사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할 때 이 시대의 가치와 타협하고, 세속 권력과 야합하고, 부에 탐닉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깊이 새겨준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란 의식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역사 속에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해 갔다. 이 머나먼 여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정을 통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고, 동시에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즉 ‘안주의식’은 개혁을 불가능케 한다. 히브리서 11장 13절-16절의 내용은 바로 이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열조들, 곧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후 ‘저들은 더 낳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저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